

“동반자이자 공동운명체...상생 협력하자”

전남도-시군 민선 8기 첫 간담회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 비전 공유 우주산업 등 지역발전 견인 다짐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민선8기 출범을 맞아 한 자리에 모여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 실현을 위한 상생 협력을 다짐했다.

전남도는 12일 도청 왕인실에서 김영록 지사와 22개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도-시군 상생협력간담회를 갖고 민선8기 미래비전을 공유하고, 도·시군정 주요 현안에 대해 상생협력을 모색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019년 12월 이후 첫 대면회의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민선8기 시장·군수 첫 상경례와 ‘대전환의 시대’에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기 위한 도·시군 간 상생발전협약을 맺었다.

김영록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6·1 지방선거에서 시·군민의 부름을 받은 시장·군수 한 분 한 분께 200만 도민의 마음을 담아 축하드립니다”며 “민선8기 도와 시군이 함께 상생하도록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시장·군수들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우주산업 클러스터



12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민선8기 ‘대도약, 전남행복시대’를 위한 도-시·군 상생협력간담회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22개 시·군 단체장들이 상생협력을 위한 핸드프링팅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조성 ▲국가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국립심뇌혈관센터 건립 ▲지방소멸위기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한 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을 김중기 전남도 정책기획관은 ‘민선8기 미래비전’ 보고에서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주

도 전남 건설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선도 ▲SOC 르네상스로 ‘초광역 메가시티 전남’ 도약 ▲전남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이 되는 시대’ 실현 등 8대 미래비전을 설명했다.

김 지사와 박홍률 목포시장 등 22개 시장·군수는 ▲안심하고 행복한 삶 영위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지역인재 육성 ▲반도체·우주항공·2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 육성으로 좋은 일자리 만들기 ▲농수축산업 고부가가치 생명산업 육성과 관광객 1억 명과 해외 관광객 300만명이 찾는 관광전남 구축 ▲기후변화, 지방소멸, 지방분권 공동 대응과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공정·투명한 인사 및 조직 운영으로 건강한 공직사회,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생발전 협약을 하고 전남 미래 발전을 위해 협력하자는 뜻을 모았다.

김 지사는 “앞으로의 4년은 전남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세계를 향해 대도약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며 “도와 22개 시군이 ‘동반자’이자 ‘공동운명체’로서 마음과 힘을 합쳐 더욱 긴밀히 상생 협력하자”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상생발전 협약에 따라 시군 건의사항과 의견을 민선8기 도정에 적극 반영해 시군 간 상생 발전의 마중물로 활용하고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 실현을 위한 도·시군 간 정책간담회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오선우 기자

민주 광주 서구를 지역위원장 ‘안갯속’

전략공천·양자대결 설 난무 이르면 오늘 선출방식 결정

양항자 의원(무소속)의 탈당으로 공석이 된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를 지역위원장 선출을 두고 후보자 면접 일정조차 공지되지 않으면서 다양한 설이 나오고 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등에 따르면 중앙당 비대위가 전남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부산 중구·영도구, 대구 동구갑, 충북 충주시 등 21곳의 지역위원장을 발표하고, 12곳은 경선지역으로 확정했다.

부산 남구갑과 울산 남구갑, 경남 진주갑 등 9곳은 2인 경선, 울산 중구와 동구, 충북 청주시·상당구 등 3곳은 3인 경선으로 하고, 권리당원 전원이 선

거인단으로 참여한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광주 서구는 발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데다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 일정조차 공지되지 않고 있어 ‘전략공천’과 ‘특정 후보 간 양자 대결’, ‘3인 경선’ 등 설과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

지난달 22~24일 공모 결과 서구를 지역위원장에는 김경만 비례대표 의원과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이남재 전 광주시 정무수석,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등 모두 4명이 응모했다.

당규 제11호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지역위원장 후보자는 3명 이하로 선정하며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단수로 선정할 수 있으나, 사고 지역구라는 특성상 중앙당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경선이 유력시되지만 당규에 따라 최

소 1명을 컷오프해야 하는데 후보별 지지 세력이 병립한데다 당 대표 주자들의 역할관계도 복잡해 당의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전국 253개 지역위원장 선출 시한이 27일로 2주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선방식 결정과 선거관리위원회 가동, 공고와 ARS투표 등 관련 절차를 감안하면 이르면 13일 또는 15일, 당 비대위에서 서구를 선출 방식을 최종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원내 지역구 단수 공천과 원외 단수, 원외 복수, 사고 지역구 순으로 결정이 진행중인 점과 배수를 압축하는데 대한 부담감과 컷오프를 둘러싼 속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결론 도출이 늦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광주도시공사, 긴급지원주택 2곳 추가 운영

광주도시공사는 12일 “주거 위기에 놓인 노숙인 및 노숙위계층을 위해 긴급지원주택(공공임대)을 추가로 확보

보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광주도시공사는 긴급한 사유로 주거를 상실한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

해 최대 3개월 동안 거주 가능한 긴급지원 주택 3곳을 운영해왔다. 광주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광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과 함께 노숙인 주거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긴급지원주택 2곳을 추가로 이달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길용현 기자

송갑석, 최고위원 도전...“호남 민심 창구 되겠다”

민주 지도부 입성 기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재선의 송갑석 의원(서구갑)이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8·28 전 당대회에서 호남 대표 주자로 최고위원에 도전한다.

송 의원은 13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송 의원은 “호남 민심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민주당의 혁신을 끌어내고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는 데 선봉에 서겠다”며 “민주당의 최대 정치 기반인 호남 민심의 창구가 되겠다”고 말했다.

정가에서는 송 의원이 호남 출신인 데다 민주당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의 대표 주자라는 점에서 지도부 입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호남은 민주당의 기반임에도 그동안 번번이 지도부 입성에 실패해 소외감과 불만이 컸었다. 21대 국회에

서는 전북의 한병도 의원과 전남의 서삼석 의원이 각각 호남 단일주자로 최고위원에 도전했으나 실패했다. 이에 송 의원이 소외감과 불만감이 큰 호남 민심을 대변해 지도부에 입성할지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린다. /길용현 기자



“도민 모두가 행복한 공공복지 실현”

전남사회서비스원 비전선포

전남사회서비스원은 12일 개원 1주년을 기념, 남도소리올림픽에서 전남복지포럼 및 비전선포식을 열고 ‘도민 모두가 행복한 공공복지 실현’을 다짐했다.

전남복지포럼에서는 양남주 대구대

학교 교수가 ‘전남행복시대, 사회서비스원에 공공성을 묻다’ 주제발표를 한 데 이어 최선국 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심은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지원과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비전선포식에서는 ‘도민 모두가 행복한 공공복지 구현’을 비전으로 선

포하고, 축사, 행복물품 기증식, 홍보영상 상영, 비전선포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전남사회서비스원은 2021년 6월 전남복지재단이 전환돼 설립됐다. 순천시 한신더휴어린이집 등 국공립사회복지 시설 운영,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 사업 등을 추진, 도내 사회서비스 허브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선우 기자

진단검사의학의 모든 것

- 대학병원, 병원, 의원의 검사장비 및 검사시약 문의
- 학교, 연구소, 병원, 기관, 사업장의 장비인프라 구축 및 초안 제시
- 분자진단 전문업체 Covid 19 PCR System
- 최적의 검사장비와 경제성·효율성

메디넷

광주광역시 광산로 171번길 104 (우산동)
Tel. 062) 223-3822 Fax. 062) 223-3821